

[첨부2] 권태신 부회장 인사말씀(안)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입니다.
오늘 프랑스의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자리해주신 필립 르포르 대사님, 감사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자리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의 놀라운 변화>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에서 여러 놀랄만한 일들을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사업가 출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영국은 그렇게도 견고했던 유럽연합 동맹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전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 역시
전 세계에 적지 않은 놀라움을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창당한지 13개월 남짓 된 앙마르슈당 출신인데다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당선됐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는 대통령 당선 당시보다 더 놀라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그로 인한 프랑스 경제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유럽 3대 경제대국 중 하나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유럽의 성장엔진이라 불리던 독일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문제였던 실업난 또한 크게 해소되어,
10년 중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의 개혁이 예상되면서
프랑스 경제의 전망이 더욱 밝게 느껴집니다.

* 프랑스 실업률 : 8.9%('10) → 8.8%('11) → 9.4%('12) → 9.9%('13) → 10.3%('14) →
10.4%('15) → 10.1%('16) → 9.4%('17) → 9.1%('18) → 8.7%('19Q1) → 8.4%('19Q2)

* 2020년까지 공공인력 8만5천명 감축 계획 및 2022년까지 법인세 33.3%에서 25%로 인하 계획 발표

<한국, 프랑스로부터 배워야>

반면 한국 경제는 12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큰 문제여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성과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특히나 같은 시기에 출발한 양국 정부가 각각의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가 나오는 현시점에서 양국의 경제 트렌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개혁을 더욱 눈여겨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간담회에 대한 기대>

지난 주말부터 연금개혁에 반발하는 시위가 프랑스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개혁의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를 수 있으나, 적어도 반환점을 돈 현시점에 경제지표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관심을 갖고 배울 점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프랑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된 프랑스의 기업환경에 대해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현재도 진행 중인 마크롱 대통령 개혁이 임기 하반기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한-불 협력기회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이야기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공유될 프랑스의 기업·투자환경 관련 새로운 정보를 통해 부디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